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26

성막 짓기

(출애굽기 35장~40장,
레위기 1장~9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걸 깨닫길 원하셨어요.

백성들이 더 이상 금송아지 따위를 믿지 않고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바라셨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젓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먼 길을 떠나야만 했는데
여기저기 장소를 옮겨 다니기에는
천막만큼 편리한 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예배 장소도
천막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길 원하셨어요.

이 장소를 '성막'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 짓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백성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성막을 지으려면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금이며 은이며 놋이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천도 좋고 동물 가죽도 좋고 기름이며
보석 종류도 다 좋습니다.”**

지난번 혼쫓이 난 뒤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기뻐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공간이 지어지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거나 마찬가지로 아난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니가 정말 든든해요!”**

누구는 금목걸이나 귀고리, 반지 같은 것들을
가져왔고 누구는 화려한 빛깔의 천을
짜 오기도 했어요.

아껴두었던 비싼 보석이나 동물 가죽
또, 나무를 해 오는 사람도 있었죠.

이제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
다 모아졌어요.

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죠.
이 재료를 잘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성막을 지을 사람들 말이에요!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맡을 사람들을
모세에게 알려주셨는데
바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었어요.

하나님께서서는 두 사람에게 놀라운 손재주를 주셨고
두 사람은 앞장서서 성막 공사를 이끌었죠.

“자, 자, 나를 보고 잘 따라 하시오.
쇠랑 돌은 이런 식으로 다듬는 게 좋고 나무는
이런 식으로 깎아서 저기 한쪽에 모아두시오.”

**“자, 주목! 나는 천을 짜고 수를 놓는 법을 알려주리다.
내가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어떤 무늬라도
아주 예쁘게 수를 놓을 수 있을게요. 에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따라서
차근차근 성막을 지어나갔어요.**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많은 사람들의 노력 끝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성막이 완성되었죠!**

예전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되도록
흙이나 돌을 모아서 쌓아 올리고
그 위에 제물을 놓고 태웠지만 이제 성막에는
놋을 입힌 근사한 제단이 생겼어요!

제단 안쪽에는 놋으로 된 그물을 매달아서
그 위에 제물을 태울 수 있게 만들었죠.

제단의 양쪽에는 두 개의 기다란 채가 있었는데
백성들이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이 채를 어깨에 메고 제단을 옮길 수가 있었어요.

그 밖에도, 제단 근처에는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을 수 있는 커다란 물동이
있었고, 성막 지붕은 비를 막을 수 있도록 튼튼한
동물 가죽으로 덮었어요.

커다란 널판을 금으로 덮어서 튼튼하게 벽도 세웠죠.

춥대며 상이며 제사장이 입을 옷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자 거대한 구름이
성막을 뒤덮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 찼다는 뜻이었죠.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이동하지 않았고
구름이 걷히면 가나안을 향해 다시 길을 떠났답니다!

이제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위해
'시나산'에 오를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막으로 찾아오셨으니깐요.

다른 백성들도 마찬가지로였어요.
그동안은, 각자 돌을 쌓고 그 위에 짐승을 태워
기도를 드렸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왜냐면 모세가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싶은 사람은 성막에 있는 제사장에
제물을 가져오십시오.
제사장들이 주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다면 제사장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의 형 아론을 ‘대제사장!’
가장 중요한 제사장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아버지를 돕게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성막에서 예배가 시작된 날 아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든 백성을 성막 앞에 모이게 하거라.”

사람들이 다 모이자,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이 입는 특별한 옷을 입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셨다는 걸 모두 앞에서 보여준 거죠.

아론이 재단 위에 어린양을 올리자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보내셔서
제물을 태워주셨어요.

그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나머지 소리치며 앞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나 보요.”

**“그러게 말이오.
2년 동안 공사를 한 보람이 있구만.
앞으로는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성막을 지었어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잘못된 걸 누우친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예배를 받으시고 틀림 없이 잘못을 용서해 주신답니다!